

# 21세기 후손에게 종이책의 추억을

## 정보시대 새로운 출판운동의 모색

김영범

김영사 대표



김영범씨.

열 다섯 살/하면 금세 떠오르는 삼중당 문고/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두터운 교과서 사이에 끼워 읽었던 삼중당 문고/.../개미가 사과껍질에 들러붙듯 천천히 훑아먹은 삼중당 문고/.../건달이 되어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와 쓰다듬던 삼중당 문고/고시공부 때려치우고 읽은 삼중당문고/.../파란만장한 삼중당문고/어느덧 이 작은 책은 이스트를 넣은 빵같이 커다랗게 부풀어 알 수 없는 것이 되었네...(장정일의 시 <삼중당문고> 중에서)

### 종이책의 기억

어린 시절 또는 젊은 시절, 한권의 책을 손에 쥐고 가슴 설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누런 종으로 만든 책이 대부분이던 시절, 새로 산 책의 하얗고 매끈매끈한 종이 질감은 책이 주는 감동과는 별도로 색다른 자긍심과 즐거움을 주었다. 어른들은 책을 던지거나 낚고 지나가면 크게 역정을 내시며 못할 짓을 했다고 주의를 주시곤 했다. 그 속에 들어 있는 소중한 가르침과 지식을 함부로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창이자 즐거움의 원천이요, 자부심의 표상이자 때로는 경외의 대상이던 '책'. 어느 시인은 개미가 사과껍질의 액과 양분을 빨아먹듯 책을 먹고 자랐음을 추억한다. 밥도 거른 채 한구석에 틀어박혀 '프란시스'의 '개'를 읽다가 책장 위

에 떨어뜨린 눈물, 그 눈물로 인해 얼룩진 종이. 수학이나 영어책 밑에 토속미 물씬 풍기는 나도향이나 김유정의 단편소설을 숨겨 놓고 읽다가 선생님께 들켜 얼굴 벌개지던 기억. 우리는 모두 책에 대한 나름의 사연들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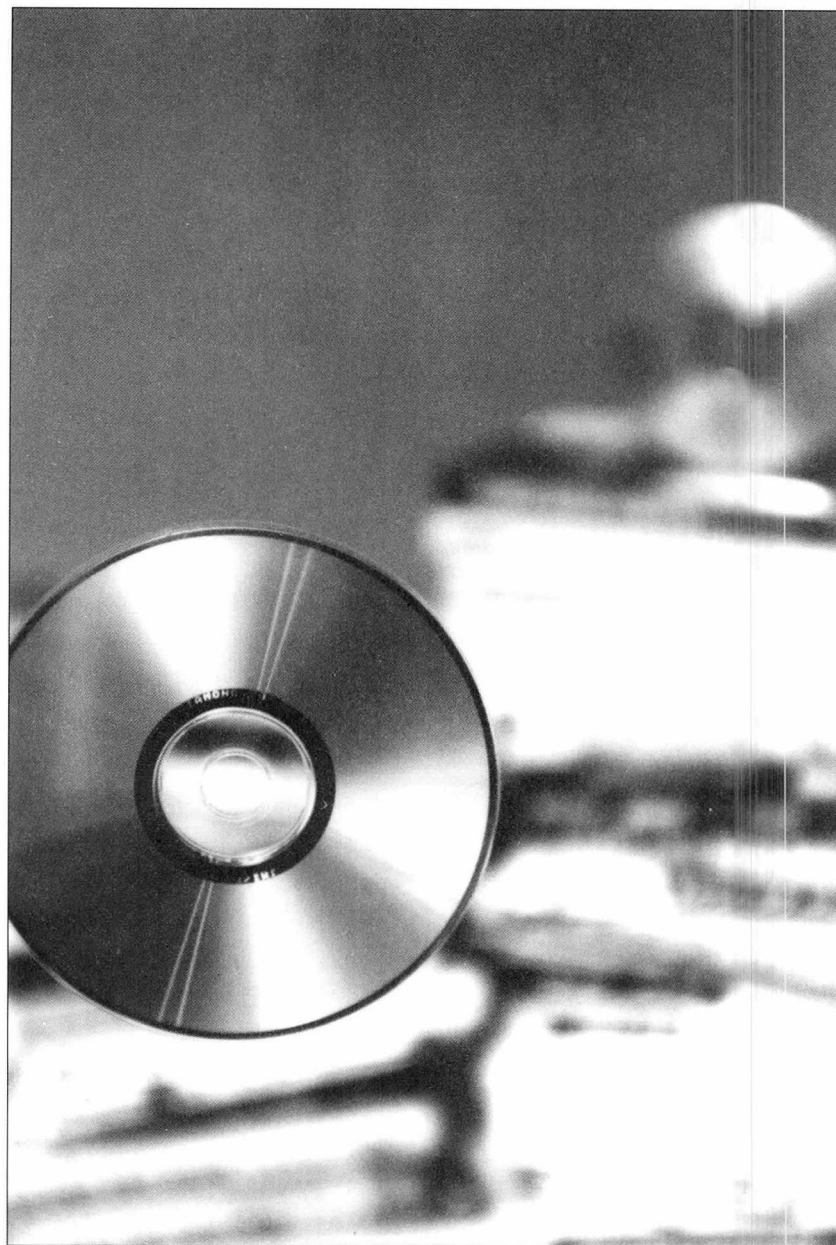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저자'의 벽이 허물어지고 책의 역할이 다양해진 대중출판의 시대가 되면서, 언제부턴가 책의 권위는 사라졌다. 모든 책이 독자들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어떤 책은 쓰레기 취급을 받기도 한다. 아울러 홍수처럼 쏟아지는 책은 종종 공해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무분별하게 책을 찍어대는 우리의 출판풍토도 한몫 했겠지만, 어쨌든 책 때문에 해마다 아마존 밀랍이 얼마씩 사라지네, 어쩌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면 책집 사람으로서 민망하기도 하고, 책을 귀하게 여기던 시절이 생각나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욱 종이책을 초라하게 만드는 얘기들이 들려온다. 현재 우리는 인쇄문명의 말기에 살고 있으며 조만간 종이책은 사라질 것이라는 소문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를 앞세운 정보혁명의 시대가 열리면서 출판계에도 뉴미디어 바람이 불고 있다. CD-ROM이나 인터넷만으로 출판물을 제작하는 출판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전자출판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외국의 전통있는 출판사들이 경영위기에 빠지거나 도산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종이책의 비극적 운명은 결국 예정된 것인가?

### 동전의 앞뒷면 같은 책과 출판사

종이책의 운명과 출판사의 운명을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 출판계는 정보혁명의 물결을 내심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든 게 불투명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다. 한때 사양길을 걸어야 했던 브리टे니커사는 CD-ROM 사업으로 다시 회생,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는 아무도 종이책의 운명과 출판사의 운명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미 여러가지 새로운 길들이 모색되었고



급변하는 정보혁명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종이책'은 끝내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다.

지금도 계속 실험중이다. 종이책은 이제 출판사가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생산물의 한가지일 뿐이다. 동전이 되어 바람 한번 불면 그만 쓰러지고 말지, 다양한 평면을 가지고 있는 다면체가 되어 어떤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살아낼 수 있는지, 그 선택은 출판사의 몫이다. 즉 길은 제시되어 있으며 이제는 선택과 실천이 문제라는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비싸고 무겁고 좁은 공간에 자리만 넓게 차지하는 백과사전을 한 장의 시디롬에 담아 간편하게 보관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종이값, 인쇄비,

제본비, 발송비 줄이고 반품 걱정 없고 재고 관리도 신경 쓸 필요없는 인터넷 전자출판은 얼마나 획기적인 거며 더구나 불필요한 시간낭비까지 줄여주니 그 아니 축복인가. 앞으로 출판영역에서 종으로 만들지 않는 출판물이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혁명시대 출판사의 대응방향과 그 당위성에 대해 얘기한다. 변해야 하는 것은 진리다. 그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모두가 변하는 것과 변해야 할 것에 대해서만

# 동행하는 즐거움

늘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고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든든한 버팀목의 구실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 | 집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및 문학 · 위인전 등  
윤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등

**기계설비** | 매킨토시 6대, 집필 / 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4대  
스캐너 2대, 인화지 / 필름 출력기 1대  
● 24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아한글 3.0, 프로 96).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중 특히 교정 · 교열 쪽의 일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경력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일을 해보신 분이었으면 합니다. 근무 시간은 9~6시이며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三現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

## 정보혁명시대에 꼭

이뤄져야 할 출판운동은

역설적이게도 '종이책의 생존'이다.

시집이나, 깊은 행간의 의미를

담은 책들을 종이책으로 읽을 수

있는 즐거움을 후대에

이어주기 위해서라도,

종이책이 줄 수 있는 함축적인

덕목에 에너지를 모아 우리 문화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얘기하니 한번쯤 우리가 지키고 보듬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를 느낀다. 역설적 접근이다.

'당분간'은 종이책과 디지털 출판물이 공존할 것이라고들 한다. 조만간 종이책이 싹쓸이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던 바로 얼마전의 강박적 예측에 비하면 훨씬 여유 있는 접근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분간'이라는 데 있다. 디지털 출판기술이 더 발달해 화상도 깨끗해지고 모니터로 오래 보고 있어도 눈의 피로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정말 종이책을 무대에서 퇴장시킨다는 것인가? 약속된 시간이 되면 되돌려주는 홍콩의 영토반환이라도 되는 건가?

처음에 얘기한 시에서 보듯이, 우리들 각자의 추억과 경험에서 보듯이 책은 이미 지식과 정보전달의 수단만이 아니라 인간의 특별한 습관이고 문화로 자리잡았다. 책의 구체적인 무게와 손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 정성스레 한권 골라 선물할 때의 기쁨, 글자와 글자 사이의 흰 여백에서 읽는 행간의 의미, 먼저 읽은 사람의 밑줄과 메모, 그리고 책을 매개로 하여 끝없이 엮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종이가 아닌 모니터가 이것을 대신해줄 것인가? 우리가 책을 통해 얻는 것이 정보 뿐이던가?

## 문화와 상징의 이미지로 자리한 종이책

우리는 변화에 대한 대응 못지 않게 출판 문화의 전통과 계승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종이책'은 급변하는 정보혁명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끝내 우리가 지켜내야 할 문화유산이다.

그러니, 정보혁명시대에 꼭 이루어져야 할 출판운동은 역설적이게도 '종이책의 생존'이다. 시집이나, 깊은 행간의 의미를 담은 철학책, 문학책을 모니터를 통해 읽는 생경함은 둘째치고라도 종이책이 줄 수 있는 문화적 의미와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후대에 이어주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으며 색다른 추억을 안겨주었는가.

새로운 출판매체를 개발하고 모색하고 시대의 흐름을 포착하는 것도 과제지만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도 출판인의 의무다. 종이책이 줄 수 있는 함축적인 덕목과 장점들에 대해 새삼스러이 생각해보자. 그 생각과 에너지를 모아 우리의 삶과 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보자.

며칠 전 지하철에서 본 한 풍경이 생각난다. 지상 교통수단으로는 영 시간을 못맞출 것 같아 급히 지하철을 탔었다. 점프하다시피 뛰어든 지하철 안에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있는데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여자는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책집 사람이라서 책 읽는 사람만 골라 보는 건 정녕 아니다. 어디서나, 책을 읽는 사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게 만든다. 그녀의 정물화같은 모습은 나의 바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이것이 바로 책의 위력이다. 인간 속에 하나의 문화상징이요 이미지로 자리잡은 책.

나는 종이책을 잃고 싶지 않다. 그러나, 책이여 인간과 함께 영원불멸하기를. ❖